

‘버마가 났다, 미얀마가 났다’

군사정권, 89년 ‘미얀마’로 변경 美·英 등선 여전히 ‘버마’로 사용

하이틴 공부합시다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미얀마 민주화 시위 왜 일어났나

‘45년 군사독재’에 지친 국민의 분노

45년동안 군사정권이 장기 집권해 온 미얀마에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면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선향색 가사(袈裟)처럼 승려들이 시위 전면에 나섰다가 ‘사프란(saffron) 혁명’으로 불리는 이번 시위는 그러나 군부에 의해 강제 무력진압되면서 미얀마는 외부와 격리된 채 ‘고립의 섬’이 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항쟁을 통해 이 땅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우리들에게 낯의 일 같지 않습니...

유가인상서 촉발된 민생불안 부패정권 규탄 민주화 요구로 국제사회 강력 압박 추이 촉각

4 국제 사회의 움직임은?

1988년 이래 19년 만에 최대 규모인 이번 시위는 대규모 유혈사태로 번질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얀마 국민의 이번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한편 미얀마 군사정부가 시위 진압에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미얀마 특사인 이브라힘 캄바리는 지난달 30일 미얀마 인권 지도자 아웅산 수치를 면담한 뒤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을 만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무력 진압의 즉각 중단과 민주화 세력과 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지난달 26일 “버마의 불법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은 전세계가 버마를 주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고, 부시 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버마의 군사 독재정권이 19년에 걸쳐 공포의 통치를 해오는데 미국인들은 분노한다”며 추가 경제제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8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화 운동 단합 규탄 긴급행동’의 촛불문화제에 이어 1일에는 5·18기념재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지역 1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미얀마 군사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 미얀마 주변국들이 미얀마의 풍부한 천연자원에 눈독을 들이면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조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양국 군부에게 피를 흘리고 있지만 일부 강대국들은 저마다 주권관 략기기에 바쁜 형국이지요.



지난달 24일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선향색 가사를 입은 승려들이 반정부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많은 시민들이 시위를 주도한 승려들의 시위대에 열려, 그 수가 10만명을 넘어섰으며 지난 1988년 민주화 요구 시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AFP=연합뉴스

1 미얀마는 어떤 나라인가요?

인도차이안반도 서쪽, 벵골만의 동쪽에 위치한 미얀마의 정식 명칭은 미얀마연방(Union of Myanmar)입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세 배가 넘는 68만km에 인구가 5천만명이나 됩니다. 자원 또한 풍부합니다. 삼모작을 할 수 있는 세계적 쌀 생산지이며,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고 목재도 많습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을 당시 국가 발전의 잠재력은 동남아의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는 잇따른 군사정권의 정책 실패로 지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군정이 시작된 것은 1962년 쿠데타 때문입니다. 반영(反英) 군사지도자 출신인 네윈은 산업을 국유화하고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끊은 채 고립적 사회주의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때부터 미얀마는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 이번 시위 원인은?

계속되는 군사정권의 폭압과 실정을 미얀마 국민들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1988년 8월 8일 절정에 달했다 하여 ‘8888항쟁’으로 불리는 대규모 민중봉기가 일어났고 3천여명이 희생됐습니다. 네윈이 물러나고 1당 독재는 끝났지만 정권을 쥐고 있던 군부는 199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선거 무효화를 선언하고 당선자 상당수를 투옥했습니다. 이후 아웅산 수치가 여사에 대한 연금과 해제, 반정부 시위가 되풀이됐습니다. 현재 수감된 정치범만 1천여명, 난민은 5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8월 15일 군정의 급격한 유가 인상으로 촉발됐습니다. 하지만 그 근저에는 군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교도가 90%에 육박하는 미얀마에서 국민의 존경과 신앙을 받아온 승려들이 이번 시위를 주도, 옛 수도 양곤에서 10여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가두 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1988년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하고 들어선 현 군사정부는 집회와 야간통행을 금지하고 대규모 군 병력을 투입, 무력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시위 9일째인 26일에는 군정의 무차별적인 강경 진압으로 최소 4명의 시위대가 사망하고 다수가 연행됐습니다.

3 희생자는 얼마나 되나요?

대대적인 언론통제 속에 미얀마 관련언론은 시위 진압 과정에

5 ‘민주화의 꿈’ 또 좌절되는 것일까요?

국제 사회는 이번 시위가 미얀마의 민주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군사정권의 폭력 진압으로 주춤해지면서 이번 사태가 군정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위 참가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양곤과 만달레이로 진압군이 추가 배치되면서 양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이대로 종결될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정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승려 주도의 반정부 시위를 ‘진압’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외신들도 이미 군정이 승기를 잡은 만큼 유엔 특사 등의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미얀마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역할입니다. 중국은 미얀마의 유전·가스전·광산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도로·건설 등 인프라 지원을 하는 등 경제·외교적 후원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올해 초 미얀마의 인권 실태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이미지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국제사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도 여야 정치로 국민을 언제까지나 누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인 개방 없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미얀마 민주화운동 일정
1962년 3월=네 윈 육군총사령관, 우 누 총리 축출한 뒤 정권 장악
1988년 3월=양곤서 학생과 지방정부 관리 충돌, 광경 무력 진압으로 학생 수습명 사망
9월 18일=수우 마웅 장군, 쿠데타 일으켜 집권 ‘버마 사회주의 계획당’(BSP) 무너뜨리고 정권 장악, 쿠데타 이후 두달 간 시위, 시위에 3천여명 사망
1989년 7월 19~20일=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지도자 아웅산 수치가 여사에 틴 우 당총재 가두행진 계속하며 6백 명 연금
1990년 3월=미얀마 군정, NLD 선거 승리 거부 뒤 시위에 강제진압으로 수습 사망
1996년 9월 27일=수치 여사 앞에서 벌이는 NLD 집회 방해, 당원 수습명 체포
1997년 3월 16일=만달레이에 통령금지령, 체포 100여명 구금
3월 27일=수치 여사 집 폐쇄, NLD 당원 300명 체포
2003년 3월=수치 여사의 군부 지지자 충돌-4명 사망, 50여명 부상
2007년 8~9월=미얀마 군정의 급격한 유가 인상으로 반정부 시위 촉발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용봉구(龍鳳區) 부동산, LC타워(주), 일가공인중개사, 대인동심일부동산, 국민공인중개사, and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Each ad lists services like property sales, rentals, and mortgage loans with contact information.